

서울有感

閔 賢 植
원도시건축연구소

노래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서울...
격동의 近代史와 함께 남아있는 傷痕
다양한 방법으로 治癒해야 할 책임있어

① 서울을 칭송하는 페티·김의 노래가 있어서 그 말미에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련다”라고 결말을 내고는 있지만 그 아름답다는 서울을 한번쯤 꼼꼼히 생각해 볼 때마다 답답해움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러한 감정은 서울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시민 한사람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관점은 다를지 모르나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착잡함과 짜증을 쉽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왜 그러하며,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우선은 한마디로 말하기 심히 어렵다. 이러한 감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대급부로 모두들 이러한 서울을 치유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야에서 그것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또한 어실픈 시행착오에 후회하기도 하며 상당한 효과적 해결에 기뻐하기도 해온 것 같다. 어쨌든 이러한 경험축적의 결과는 일단은 단편적인 한 부분이나 또는 어떤 하나의 논리나 주장으로 쉽게 결말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어느 한 개인이나 전문직에게 그 책임을 묻거나 그것을 꼬집어 보거나 또는 나름대로 제안도 해보는 것은 한번쯤의 불만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대개 다분히 기자적 발로에 지나지 않음을, 본질에 접근하는 치유가 아님을, 느끼게 된 듯하다.

물론 지금까지 총동되고 제안되고 야기되어 온 서울에 대한 문제들, 비판들, 방향제시들이 나름대로의 논리적 추이에 의해 나름대로의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국부적인 영역에 대한 현학적이거나 자조적·일시적 방편 또는 막연한 공자말씀에 그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요즘에 와서는 새로운 분야로 대두되는 도시설계수법은 그것으로 이러한 모든 분야를 통합해 보려는 노력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의 만병통치가 또한 극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 역시 도시문제에 학문적 조예가 깊은 전문가도 아니며 또한 지금까지 그려낸 몇채의 집들이 명쾌히 서울 도시공간에 대해 공간적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입장이고 보면 이글 역시 상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도시문제는 전문가나 행정가 또는 그중 어느 개인의 천재적 능력이나 하나의 탁월한 논리나 수법만으로 해결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은 좀 더 참고 견디면서 성급하지 않게 각 분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실하게 풀어나갈 수 밖에는 없는 것 같다. 도시의 치유는 불량한 것들을 단순히 양질의 것으로 치환하는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활력소를 생성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 방법만이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의 총체로서 서서히 변개·발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서울을 얘기해 봄에 앞서서 우선 현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들추어 봄이 얘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될 것 같다. 지금의 현대도시에서는 지난 세기 초처럼 만인이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의 창조자가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현대의 도시에는 이미 르·콜호뷔제의 빛나는 도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건축사(建築史)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잃어버린 고대도시로, 중세의 성채로 환원될 수는 더욱 없다. 이런 실변이 심한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러한 하나의 영웅적 주장으로는 이 시대의 정신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특질은 우리앞에 가장 소규모의 유파조차 형성하기 어려운 고독한 주장들이 제각기 내거는 수만가지의 색다른 방안이 있을 뿐이며, 이런 방안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철저한 노력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시대가 가지는 현대도시의 실상(實相)은 강 병기교수께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건축가 1982. 5·6 월호 URBAN DESIGN 에 관하여) 다수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원적이고 다중적인 구조를 가진 존재이며 또한 도시는 불확실성 속에서 형성되어가고 완결이 있을 수 없는 과정적 존재이다. 이 정의에서 자주 보이

는 **다수·다양·다원적·다중적**의 미하는 바는 현대도시가 지향하는 윤리가 **형평의 정의(正義)**를 가지기 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도시가 히틀러의 사주에 따라 A. 스피어에 의한 베를린이나 빵과 서커스만을 제 공하는 고대로마, 3S 정책으로 이루어진 식민지의 도시들을 원한다면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풀어질 것이다.

그것은 모든 도시의 구성원들이 자기임을 포기하고 대형(大兄: BIG B-ROTHER)의 지시에 따라 자유에서 도피함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는 거기에 사는 많은 구성원 모두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도시가 그 구성원에게 혜택과 부담을 고루 나누어야 하는 정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그래서 도시는 개개와 개개의 관계를 위한 장소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고등화된 사회에서의 도시에서는 이웃이나 개인간의 관계는 중속되거나 또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만남이다. 그래서 이웃끼리 평온한, 친밀한 살맛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즉 현대 도시에서의 관계는 어느 쪽이 다른 쪽을 설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며 이야기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장소는 그러한 공존의 질서 위에, **형평의 정의(正義)** 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서로의 개개를 위해 엄격히 분별되고 또한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입할 수도 있는 **이율성(二律性)**의 조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도시는 수많은 개체들 만큼이나 많은 공동의 약속 위에 성립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원화된 사회는 그 공동의 약속이 더욱 많아질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며 불확정적이며 따라서 그것을 위한 물리적 환경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이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정의에서 과정적 존재란 도시를 역사 위에 살아 있는 하나의 유기체(有機體)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도시는 시대적으로 진화와 변천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도시의 역

사성을 무시하고 도시의 물리적 기능만을 추구한 현대의 신 도시들이 그렇게도 무미함을 경험으로 안다. 도시를 그렇게 변천하게 한 역사적 필연성을 충분히 그리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그 도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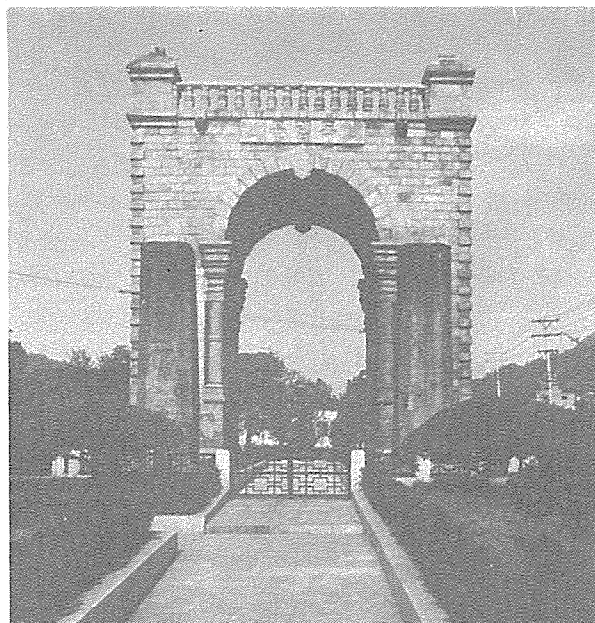
③ 서울은 역사와 더불어 그 이름도 **한양(漢陽)·양주(陽州)·남경(南京)·한성(漢城)·경성(京城)·서울** 등으로 변해 왔다. 한양이란 이름이 처음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 신라 경덕왕 16년(757년) 12월이니 어언 1,000년의 연륜을 넘어서는 도시이다. 대체로 서울은 산세가 좋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데다가 한강이 흘러 아름다운 고장으로 지목되었다. 서울이 타고난 품위와 가치는 세계 어느 곳과도 능히 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골격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온 영욕의 역사와 함께 1,000여 년을 수없이 변개·변천해 왔으며 특히 금세기를 들어서면서 우리가 몸소 겪은 치욕과 격동의 근대사와 함께 갈갈이 난도질 당한 상한 갈대처럼 휘청거리게 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도시가 역사적 유기체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솔직히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밟던 곱던 이제 면밀히 서울의 장소들을 복합적 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역사적 필연성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지금 서울이 가진 제문제는 여흥구

교수가 잘 분석해 주고 있다(건축사 1980. 8. 서울의 도시정비). 이 지적들을 분류해 보면 주로 토지이용의 효율, 교통문제, 위생, 도시미관 등 도시의 모든 물리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정비의 방향 제시는 기존도시 활동구조의 보존·활용·효용의 극대화에 집약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역사성을 무시하거나 구성원의 개개의 욕구를 무시한 정비는 영웅적 계획, 엘리트 취향적·계획적 제어가 도리어 더 많은 문제를 낳는 오류를 범하게 됨을 경고하고 있다.

도시의 재정비 재구성의 주된 형식이 많은 내외의 사례를 보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 기능치환의 형식보다는 기능충실의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이었음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서울의 장소들을 두서 없이 몇군데 선택하여 점검해 보려한다.

● 독립문

서울 서대문 네거리에서 무악재로 올라가는 중간쯤에 길을 막고 섰던 독립문. 한때 국가 중요기념 포스터에 으레 등장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폐나 우표를 장식했던, 우리 마음에 독립의 표상으로 그 지위를 차지 하던 독립문은 금화터널이 뚫리고, 그리로 통하는 고가도로가 놓이는 바람에 지금은 본래 위치에서 북으로 70M 옮겨져 서쪽 길가에 서서 잊혀질 위협에 의롭게 서있다. 본래 독립문



● 독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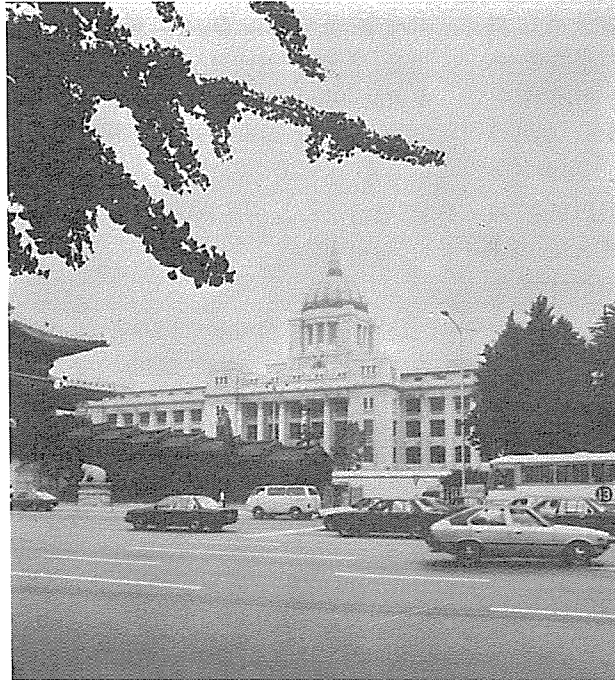
그렇게 쉽게 옮겨진다면 서울의 都市의 意味는 무엇인가?

이 있던 자리에는 약간 북쪽으로 영은문(迎恩門)이 있었고 그 뒤편에 모화관(慕華館)이 있어서 이조시대에 중국에서 중요한 사신이 오면 임금이나 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여기까지 나와 마중하고 전송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한 연유도 있고 또 이름마저 영은문이니 모화관이었기 때문에 개화기에 우리의 선각자들이 이것을 사대주의의 징표로 간주하고서 재필선생이 주도하던 독립협회가 주동이 되어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설계의 본이 되었던 빠리의 개선문에 비한다면 그 규모나 형색이 비교가 안될만큼 초라하기 그지없고 그것이 모조품이어서 건축미학적인 가치가 없는, 그래서 헐어버려도 별 아까울게 없을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게 한 정신과 그간 쌓아온 애환은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물론 그 당시에 사대주의란 말에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그말에 대한 인식의 잘못은 역사가들의 심심찮은 논쟁이 되고 있음은 그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도시기능 때문에, 그것도 특히 예산상의 문제로 그토록 역사적인 자리에서 밀려나야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

그간 상당한 사회적인 물의, 성실한 논쟁이 있어 왔고 직접 담당자들의 고심 등 그리 쉽게 결단이 났다고는 볼 수 없다. 허나 우리의 집들은 전통적으로 그집의 양식이나 형태의 아름다움에도 가치가 있지만 오히려 그 집이 입지하고 있는 장소적 의미에 더욱 큰 가치가 있다. 만일 이러한 역사 속의 장소들이 현대도시의 직설적 기능이나 경제성보다 우선순위에 밀린다면, 그래서 하나 둘 없어지거나 옮겨진다면 그렇게 남은 기능적인 서울은 과연 무슨 도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까.

● 중앙청

서울의 경복궁을 비롯한 덕수궁·경희궁·창덕궁·창경궁 들은 이조시대 통치의 중심이었으나 일제치하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주권을 상징하던 이들 궁궐은 난도질 당해서 어느 것 하나 상처를 입지 않고 옛모습을 그대



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름이라도 기억되는 이 궁들은 그나마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밖에 궁이라 이름이 붙었던 중소규모의 많은 건물들은 자취마저 없어져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다.

특히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왕권의 회복을 위해 고심참담하며 복구한 경복궁은 일본인들이 남쪽 반을 갈라 총독부를 짓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다. 여러 궁궐 중에서도 태조가 손수 지은 것으로 이조의 총본산이라고 능히 말할 수 있는 곳이다. 하필 여기에 총독부를 지을게 뭐냐고 일본 식자간에도 왈가왈부하 있었지만 일제 위정자들은 이자리를 깔고 앉는데 오히려 승자의 쾌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오욕의 역사를 지닌 중앙청이고 보면 그것이 지겹도록 보기 싫을 수 밖에 없고 특히 그 속에서 36년간이란 긴 세월을 당하기만을 강요한 술한 정책결정과 명령이 내려진 본산이고 보면 해방과 더불어 응당 폭파시켰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런대도 그때의 상황이 어쩔수 없어 총독부는 중앙청으로 개명되어 현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권외 상징으로 변한 역사의 아이러니와 함께 남대문-광화문-경복궁-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가장 아름답던 남북축의 맥을 끊으며 버티고 앉아 우리의 피로운 기억을 끌어대고 있다. 최근에 와서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박물관으로 또 한번의 변신

● 중앙청

그곳에 지은 것부터 잘못이지만 우리네 現代史의 증인인 것을...

을 치르고 있다.

전술한 대로라면 지금이라도 그 오욕의 덩어리를 치워버리고 경복궁 복원의 대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이라고 판단될 법도 하다. 그러나, 그러나이다. 그것의 오욕과 회한이야 이루 말로 다할 수 있겠느냐만 어쨌건 8.15해방과 대한민국정부수립의 현장으로, 또 9.28서울수복에 처음 태극기를 꽂으며 그곳에서 통곡과 기쁨이 교차한 30여년의 풍상과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이럴 때 그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증인으로 박물관으로 변신하여 남아주는 것이 대인다운 역사를 극복하는 지혜가 아닐까.

파괴의 쾌감은 잠깐일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해이해가는 정신에 이따금씩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주리라 기대된다.

● 덕수궁 돌담길

둘이켜 보면 연인들의 장소로 대표되는 이 돌담길도 뼈아픈 연고로 뚫어진 길이다. 덕수궁은 원래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그 이후 구한말까지 수없는 영욕의 세월을 거듭하며 집의 주인이 바뀌다가 급기야 고종41년(1904년)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멸하였다가 다시 간신히 재건되었으나 고종의 붕어 이후 일본사람들의 난도질에 의해 많은 전각이 헐리고 자기네 여학교, 지금의 경기여고와 덕수국민학교도 짓고 현 법원으로 부

터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길도 냈다.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칼질을 하고나서 1933년부터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 이후 이곳은 헐리고 물리고 다시 복원되는 등 많은 변신을 거듭해 오는 동안 유행가로도 불리울만큼 많은 젊은 연인들의 가슴에 사연을 남겨왔다. 이런 회욕의 역사현장이 지금에 와서 연인들의 장소로 사랑을 받아온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대표할만 하다. 그들의 속삭임 속에 이곳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우리 민족의 가장 부끄러운 장소이었음을 상기해 본 대화가 한 두번쯤은 있었으리라. 어쨌건 아직까지는 일방통행으로 그나마 차량이 제한되고 교통량을 증가시킬 요소가 발생되지 않아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서울도심의 호젓한 산책길로 명색이 유지된다. 대한문이건 담장이건 자동차의 소통을 이유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걸 보면 이곳도 언제 또 자동차의 홍수에 잠식되어 버리지나 않을지 위태위태하다.

● 화신백화점

서울이 가졌던 세칭 양식건물(洋式建物)은 이제 별로 남아 있는 것이 드물다. 그것은 6. 25의 전화에 없어지고 또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기에 마땅치 않아서, 도시교통문제로 지가높은 땅의 효용성 때문에 하나둘 현대식 건물로 대체되거나 도로



● 화신백화점 / 우리 건축가의 貴重한 作品. 철거 위협에 “전전공공”에처로워

확장으로 헐리어 왔다. 그러던 중 몇몇 사려깊은 분들의 기록과 주장에 힘입어 그나마 남은 몇몇 의의깊은 건물들을 범으로 보존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우리 근대 건축사적 의의와 더불어, 하기사 그들 대부분이 중앙청모냥 깊은 회욕의 현장이 대부분이라 어찌면 같은 논리로 보존되어 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중 우리 눈에 가장 잘 부각되어 온 화신백화점은 아직도 종로 입구에서 그곳을 별명하는 지역명으로 최소한의 본래기능을 가지고 외롭게 서있다. 특기할 것은 대부분의 양식건물은 당시 외국인의 손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이 화신백화점은 우리 현대건축의 선구자인 박 길룡님의 설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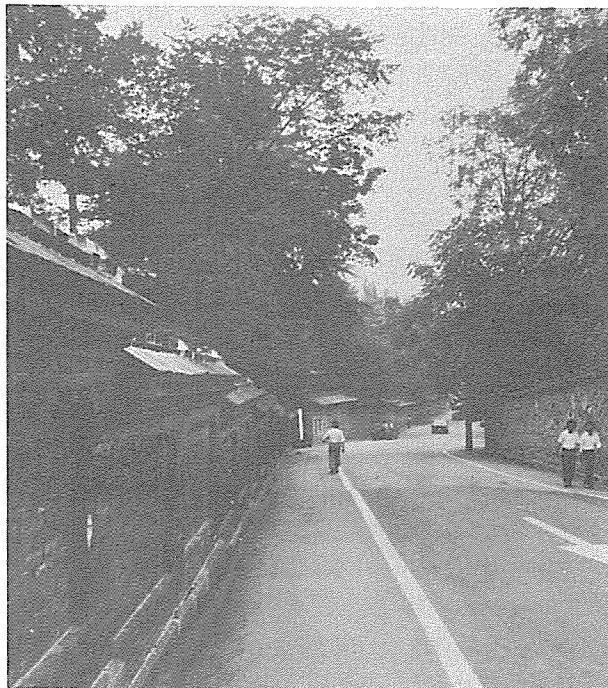
의한 것이어서 더욱 사랑스럽다. 그것이 보존건물의 명단에 끼어들었는지, 게으름의 소치로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지금의 형편을 들여다 보면 건축을 한담시는 후학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 한때는 시골사람이 상경하면 으레껏 찾는 관광 코스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현란한 대형백화점에 밀리고 밀려서 이제나 저제나 헐릴 것을 기다리는 듯한 몸짓으로 외면당하는 건물이 되어버렸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우리의 현대건축사는 기록될 것들이 기록되기 전에 자취를 감춰버릴 것도 같은 우려는 다만 건축하는 사람들에 게만 한정되는 걱정만은 아니다.

●여의도 먹자빌딩

맨하탄의 꿈은 사라지고
찢긴 대지위에 피어난 독버섯

70년대 전후로 서울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박 병주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도시정비계획의 세번째 파도는 60년대초에 일기 시작해서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70년에 최고조에 달한다(건축사1983. 4.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이때 서울시로서 가장 크고 획기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여의도 개발이었을 것이다.

전후세계는 새로운 도시건설과 재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것은 20세기의 거장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수많은 신도시들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법으로 대대적으로 건설·수정되었다. 급기야 미래도시에 대한 꿈에 부풀어 70년대를 전후로 한다는 도시설계가·건축가들은 너나 없이 나름대



● 덕수궁 돌담길
恋人들의 오솔길—
“아이러니”
그나마 차량왕래로
보존위협

로의 2,000년대를 향한 미래도시를 그려내는 것이 유행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외적사조와 함께 설계된 여의도는 패기찬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도시팽창의 대안제시라는 일차적 목표를 넘어서 서울의 맨하탄을 꿈꾸며 모든 새로운 도시기법을 도입하여 한국도시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설계된 입체 도시는 급기야 시의 재정적 정책의 뒷받침을 받지 못해 그어진 선을 따라 평면적으로 토지가 분할되어 분양되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광장이 황량하게 깔림으로 해서 초기의 꿈은 느닷없이 깨어졌다. 그 결과를 우리는 이제 현실로 보고있는 것이다. 대지면적이 몇 백평 내외로 잘게 분할된 상업지구에, 물론 대지면적 최소한을 가난하게 따지는 도심에 비한다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지하 아케이드·일층 임대점포·기준층 분양사무실·최상층에는 사선제한으로 경사진 구석이 스카이라운지라는 천편일률적인 여의도식 건물이 즐비하게 개발자의 손에 의해 들어서고 있고 소기의 기능대로 도시의 수요가 없어 분양이 여의치 않차 먹는 장사가 제일이라는 말을 실증이라도 하듯 한 건물전체가 먹고 마시는 음식점들로 채워져 간다.

하기야 “모든 음식이 준비돼 있어 식도락가들이 무엇이든 즐길 수 있고 늘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 편리한 점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어 어쩔거나 좋은 점도 있다고 자위할 수 있겠으나, 어딘지 기형아로 변신된 여의도는 쓸쓸하기 그지없다. 좀 더 공유(共有)의 정신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평면에서 입체로의 해결에 조금만 더 깊은 관심을 보였더라면, 우리 사회가 황금만능·일확천금의 윤리를 저지하려는 노력이 빨랐다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실현시킴에 조금만 느긋해서 개발의 속도보다는 결과되어질 현상에 조금더 깊은 예견이 있었더라도 이렇도록 비정상적이어야 했겠는가.

● 세운상가

惡貨가 良貨 구축한 케이스
조금만 손질하면 소생가능

여의도와 더불어 서울시의 골격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 중의 또 하나는 서울의 동서축에 직교하여 남북으로

뻗은 세운상가일 것이다. 세운상가는 서울의 종로·청계로·을지로·퇴계로의 동서동선에 교차하는 새로운 흐름을 두어 남북으로 뚫 막혀버린, 길게 다닥다닥 이어진 동서의 도심기능을 상호연결시킴으로 고식화된 도심기능을 되살리며, 지표면의 자동차 레벨에서 고가(高架)된 보행자데크를 만들어 보차(步車)를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였고, 또한 상업시설과 주거를 하나의 콤플렉스 속에 공유한 참신한 발상이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시재정난은 이곳에도 다름없어 도시의 맥락을 잇는 기반구조의 건설은 도외시되고 우선 토막토막 지어 짓다보니 처음 의도된 남북축은 그림으로만 남고 자동차의 흐름은 동서도로에 의해 그 연결이 차단되며 보행자는 거추장스럽게 3층 높이를 오르락거리질 않게 되니 의도된 흐름을 수용할 여지가 생길 까닭이 없다. 그뿐 아니라 인접한 불량지구는 그대로 방치되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실증이라도 하듯 자연스레(?) 이곳으로 침식되어 지금은 더럽고 축축한 곳으로 토막난 막다른 보행자데크는 도시의 우범지대로 퇴폐와 무질서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

이렇다 해서 이곳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조금만 손질할 열성을 가진다면 어느 곳 못잖은 좋은 장소로, 의도된 도시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열성이 아쉽다.

● 롯데 1번가

商魂이 너무 앞서 있지만

그래도 걸어보고픈 素望채워

몰(Mall)이라 지칭되는 대상(帶狀)의 보행자구역은 광장과 함께 현대도시의 옥외공간 설계수법에 가장 많이 도입되는 개념일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보행자의 자동차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넘어서 도시민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각종 액티비티를 유발시키는 도시의 활력소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즐기는 가운데 상리적 목적을 부가하여 달성할 수도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반도특정가구로 지정되어 개발된 롯데 1번가는 그 금싸라기 땅을 현대적 개념의 몰로 제공함으로써 상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성공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을지로 입구와 명동을 이어가는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은 그 축상에 있으면서도 연속된 하나의 공간으로 이어주지 못함이다. 또한 각종 도시의 액티비티를 수용하려는 의지보다 상흔이 너무 앞선다는 등 몇가지 아쉬움과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대로 외국풍으로 잘 디자인되고 좋은 재료로 장식된 공간은 잠시나마 걸어보고픈 충동과 작으나마 소시민적 기쁨을 채워주는 서울의 명소임에는 틀림없다.

● 한강의 다리들

流行歌처럼 소란스러울 뿐
아름다운 한강 위해 투자해야

G. 아펠리베르의 시 “미라보 다리”는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르네...”로 시작된다. 이 시는 노래로 지어져서 유명한 상송가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흥얼거리는 애창곡이 되었다. 이 시와 노래에 익숙해져 미라보 다리를 찾겠다는 이국인이 세느강변에 서면 우선 수많은 다리들이 제각기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뿔내고 있음에 놀라고, 당연히 유명해야 할 미라보 다리는 지도상에도 그려지지 않아 거리의 빠리장에게 물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 도시의 풍부함에 또한번 기가 죽는다. 여기에 비한다면 헤논이의 “제3 한강교”는 얼마나 야단스러우며 한강의 다리들은 왜 그렇게도 멋대거리들 없는가.

우리가 해방되면서 제대로의 다리는 유일하게 한강인도교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 이름도 60년대 이후 건설되기 시작한 새 다리들에 맞춰 일련번호에 의해 제1 한강교라 통칭케 되었다. 한강에 축조되어 온 제2·제3 한강교는 그 이름이 대변해 주듯이 아무 모양도 애깃거리도 없는 무미한, 단지 기능만이 죽하는 다리일 뿐이다.

그후 계속된 다리들의 명칭이 제4·제5 등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울지 모르나 그 생김새와 목적

은 잠수교를 제외하고는 한결같다.

요즈음에 와서 도시미관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공사비의 배를 들여서라도 아름답고 독특한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뜻으로 색다른 형태와 공법으로 성산대교를 필두로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선 반갑기 그지없다.

구조물의 아름다움은 그 구조적 합리성과 일치할 때 극에 달한다. 우리가 고딕성당의 아름다움에 찬탄하는 것이나 P. 네르비의 현란한 구조미에 반하며, 그 길고긴 스펀을 두개의 교각에 매달은 금문교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가진 줄부에게는 성산대교를 필두로 한 몇 새로운 다리들은 우선 그 능란한 가짜수법에 큰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의 물지향성(Water Oriented)와는 달리 해지향성(Sun Oriented)이라 우리는 다리·물의 아름답고 추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변명할 마지막 카드를 감추고 있을지 모르나 그 몇대가리없는 다리하며 강을 우리의 접촉에서 꼭꼭 막아놓은 고속화된 강변도로가 서울의 자랑인 한강을 우리의 일상에서 지워버린 원흉이라면 과한 말일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고수부지에 하나 둘 들어서는 체육공원, 새로 건설 중인 다리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주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깨끗한 물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한강개발사업이 성급하다든지 미흡하다든지 등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참아온, 참기 잘하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대를 가지게 함에 족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깨끗한 강변에서 뛰놀며 다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겠기에 말이다.

●신사동네거리

제3 한강교를 건너 영동지구라 통칭하는 강남구 초입 신사동 네거리에 이르면 누구나 한번쯤은 그 기이한 풍경에 놀라게 된다. 웬놈의 거리가 술집·여관일색인가. 급격히 팽창하는 서울의 숨통을 트기 위해 개발된 영



● 신사동네거리 / Bed Town의 난잡한 初入. 건강한 곳으로 변화 피해야

동지구는 졸속한 개발정책으로 가장 융통성 없는 지역·지구제로 채택되면서 지형지세를 무시한 도로망으로 구획된 주거만의 침상도시(Bed Town)로 화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아예 꿈꿔보지도 못하고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그렇게 불로소득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조악한 상혼은 불건전한 소비성향을 조장하였으며 그런 배똥어진 윤리의식은 가장 말초적인 퇴폐와 영합한 거리가 되어버리도록 몰아쳤다.

이제는 이곳의 치유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곳에서 얻은 경험을 표본삼아 전혀 극단으로 다른 수법으로 눈길을 목동으로 옮기고 있다.

●교방동네 사람들

한동안 황석영·이 동철 제씨들의 밑바닥인생 교방동네 씨리지가 서점가에 열풍을 몰아왔다. 급변하는 사회속에 소외된 사람들의 절실한 얘기가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다. 그곳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 비춰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아마 아무리 부정하는 몸짓으로 감추려해도 그곳이 우리 자신과 진배없다는 원초적 애정의 발로일 것이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구획된 지역에만 전개되는 먼곳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접하는 종로의 뒷골목, 무교동의 낙지골목, 청진동 해장국집, 을지로입구 인쇄소골목들이 그러하며 남대문·동대문시장이 그러하다.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진다해서 그것을 예찬하는 감상에 빠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곳들은 절제되지 못한 생존의 일차적 욕구로 무질서와 혼돈의 범벅을

이루어 도시를 쪼먹는 암과도 같은 존재이다. 거론하려는 것은 그곳이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런 꼴불견을 싹 쓸어 버리고 깨끗한 레스토랑, 현란한 호텔, 번쩍거리는 백화점, 미끈한 사무실로 바꿔치겠다는 논리에 반하려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이미 오래 전 네로황제도 품었던 망상이다. 그곳은 그곳대로 인정하고 도시 하부구조를 개선하여 건강한 곳으로 활기를 북돋는 장소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눈으로 그곳을 볼 때 그속에 널린 놀랄만한 지혜와 기법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대도시의 버나클라 속에서 역설적인 해결방안을 배울 수 있다. R. 벤츄리를 따라 라스·베가스, 르·꼴호뷔제를 따라 지중해 도서지방으로 따라갈 필요없이 그 속을 배회하며 배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논리가 너무 비약한 것일까?

④ 너무 잡담같이 단순하고 단편적인 관점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밖에 없으며 아마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에, 어찌면 지극히 감상적 발상에 의하고 있음도 인정한다. 그러나 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장소들에 대한 도시민의 말초적 감각 또한 버릴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자위에서이며 또한 가능한 긍정적인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어차피 버리지 않을 우리의 서울을 애정을 가지고 보려고 함이며 밀어치웠으면 하는 감정이 치솟아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번쯤 돌이켜 보는 인내를 가지면 해서이다.

미워도 다시 한번. (*>)